

佛語動詞의 時制關係

담화 · 서술 / 단순형 · 복합형

鄭 智 榮

1. 문제점 제기

불어 문법책의 동사활용표를 보면 같은 어근에 속하는 동사는 인칭마다 어미 변화가 모두 동일하며 그 형태도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인칭형태는 모두 <현재>, <반과거>, <정과거=단순과거> 등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현재, 과거, 미래로 구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서술적 이야기(récit historique)나 담화(discours)속에 쓰여진 시제의 복잡한 구성을 이해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언어구조가 그러하듯이 동사시제에 대한 개념도 획일적인 사고만으로는 옳바르게 이해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il allait sortir* ‘그는 외출하려고 했다’라는 구문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allait*라는 반조동사가 있으므로 해서 *sortir*라는 동사의 시제가 막연하게나마 들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il a couru*라는 복합형에서도 시간의 개념은 아주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¹ 과거의 행위인지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il avait couru*라는 대과거의 형태를 대응시켰을 때는 복합형의 시제가 과거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과 개념간의 상호 대립관계를 맺을 때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역으로 상반되는 개념끼리 충돌할 때 뜻하지 않은 효과 기대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동사시제를 중심으로 한 담화나 이야기(récit)에서 뿐만 아니라, 인칭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위의 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불어동사의 시제는 획일적인 체계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체계 또는 보충적인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체계는 각기 내포하고 있는 자기 시제의 일부분만을 발휘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호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locuteur)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두 가지 기술방법(이야기의 체계와 담화의 체계)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본논지는 E. Benveniste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서술적이야기와 담화, 그리고 동사시제의 단순형과 복합형에 관하여 고찰하겠다.

2. 서술적 기술(énonciation historique)

오늘날에 와서는 문어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과거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말하는 사람의 개입 없이 과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건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술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¹ 복합과거의 시제가 본래 avoir+p.p.인 고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시간적 차원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는 현재와 아무런 관계없는 과거 속으로 파묻혀야만 한다. 더 타당한 표현을 빌리면 그 사건이 서술적 시제로 기록되고 표현되자마자 이미 과거의 것으로 낙인 찍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의 커다란 기능 중에는 서술적 의도도 내포된다 하겠다.

서술적 이야기 속에는 인칭과 시제가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다. 첫째로 자서전적인 형태는 모두가 배제되며, 인칭에 있어서는 je, tu 그리고 시간적으로 현실과 관계 있는 ici, maintenant 등과 같은 표현은 용납되지 않는다.² 왜냐하면 이것들은 담화의 전형적인 기술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칭에 있어서도 3인칭만이 허용되고 있다.

시간적 표현의 범주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단순과거³, 반과거(여기에는 반과거의 어미로 이루어지는 조건법도 포함된다), 대과거 등 세가지 시제로 국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미래대신에 전망적 시제(prospectif)⁴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밖에 현재시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개념을 나타낼 때는 현재가 쓰이기도 한다. 이상의 서술적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시제가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소개 하겠다.

Quand Solon eut accompli sa mission, il fut jurer aux neufs archontes et à tous les citoyens de se conformer à ses lois, serment qui fut désormais prêté tous les ans par les Athéniens promus à la majorité civique. Pour prévenir les luttes intestines et les révolutions, il avait prescrit à tous les membres de la cité, comme une obligation correspondant à leurs droits, de se ranger en cas de troubles dans l'un des partis opposés, sous peine d'atimie entraînant l'exclusion de la communauté: il comptait qu'en sortant de la neutralité, les hommes exempts de passion formeraient une majorité suffisante pour arrêter les perturbateurs de la paix publique. Les craintes étaient justes; les précautions furent vaines. Solon n'avait satisfait ni les riches ni la masse pauvre et disait tristement: «Quand on fait de grandes choses, il est difficile de plaire à tous»². Il était encore archonte qu'il était assailli par les invectives des mécontents; quand il fut sorti de charge, ce fut un déchaînement de reproches et d'accusations. Solon se défendit, comme toujours, par des vers: c'est alors qu'il invoqua le témoignage de la Terre Mère. On l'accablait d'insultes et de moqueries parce que «le coeur lui avait manqué» pour se faire tyran, parce qu'il n'avait pas voulu, «pour être le maître d'Athènes, ne fût-ce qu'un jour, que de sa peau écorchée on fit une outre et que sa race fût abolie»³. Entouré d'ennemis mais résolu à ne rien changer de ce qu'il avait fait, croyant peut-être aussi que son absence calmerait les esprits, il décida de quitter Athènes. Il voyagea, il parut à Cypre, il alla en Égypte se retremper aux sources de la sagesse. Quand il revint, la lutte des partis était plus vive que jamais. Il se retira de la vie publique et s'enferma dans un repos inquiet: il vieillissait en apprenant toujours et beaucoup», sans cesser de tendre l'oreille aux bruits du dehors et de prodiguer les avertissements d'un patriotisme alarmé. Mais Solon n'était qu'un homme: il ne lui appartenait pas d'arrêter le cours des événements. Il vécut assez pour assister à la ruine de la constitution qu'il croyait avoir affermie et voir s'éten-

² 문체의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즉 과거의 이야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일 수도 있다.

³ "Il fit un grand silence. Maintenant les policiers pensaient à toutes les vengeances que ne manquera pas d'exercer Matteo Brigante (Cressot, 1969:160).

⁴ Benveniste는 단순과거(passé simple)를 aorist라고 부르고 있다. 이야기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담화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⁴ 예를들면: il allait partir, il devait tomber, 전통문법에서는 imparfait de tentativ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dre sur sa chère cité l'ombre pesante de la tyrannie.

(G. Glotz, Histoire grecque p.441-2.)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술형식에서는 단순과거, 반과거, 대과거 등 세가지의 시제만이 상호 결합되어 과거의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서술가로서의 자신의 이야기에 충실하면 된다. 이 밖에 사건과 관련없는 모든 것(예를 들어 담화, 숙고, 비유 등)은 제거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사건만이 물의 흐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이는 시제가 단순과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건의 시제인 것이다.

3. 담화

담화의 세계는 서술의 차원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기술방법이다. 우선 온갖 종류의 구두연설, 장광설의 비천한 대화 등이 이에 속하겠으며, 서신, 일기, 극작품 등 대상을 염두에 두는 것은 모두 담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술적 이야기와 담화를 구별하는 것은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서술적 기술은 문어체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담화에서 쓰기도 하며 말하기도 한다. 담화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담화가 필요할 때 서술가는 주인공의 말을 재현시킬 수가 있으며 때로는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건에 개입하는 수도 있다. 이럴때 우리는 시제의 다른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 즉 담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어는 이처럼 즉각적인 이진성을 가능케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의 설명에서 한가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 3의 기술형태에서 서술과 담화가 서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담화는 사건의 이름으로 언급되며 서술적 차원으로 전치되고 만다.⁵

4. 시제와 인칭

동사의 어떤 시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담화와 서술의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될 수도 있다. 담화에서는 인칭(je, tu, il) 모두가 거침없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서술에서 쓰이는 3인칭은 담화의 3인칭과 그 가치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narrateur)이 개입되지 않으며 3인칭은 다른 어떤 인칭과도 대립되지 않는다. 3인칭은 그야말로 인칭부재(non-personne)⁶의 인칭이라 하겠다. 그러나 담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인칭부재의 il을 je와 tu에다 대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시제도 훨씬 폭 넓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단순과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제가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담화의 세 가지 기본시제로는 현재, 미래, 그리고 복합과거가 있다. 모두가 서술적 이야기에서는 쓰이지 않는 시제다(단 대과거는 예외다). 주목할만한 것은 두 가지 기술방법에 공통으로 응용되는 시제가 바로 반과거라는 점이다. 또한 동사의 시제 중에서 가장 미묘한 뉴앙스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그 용법도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반과거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⁵ 자유간접화법의 경우는 더욱 더 서술적 이야기 형태에 가깝다.

⁶ Benveniste (1966:228)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삼인칭은 인칭이 아니다. 동사형태의 기능자체로 인칭부재를 나타내고 있다."

시제의 가치를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서술과 담화의 세계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동사시제의 응용도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로 Meillet는 단순과거의 《소멸》을 주장하고 나섰다.⁷ 물론 구어체에서의 소멸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구조에서 그 기능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대치될만한 더 좋은 형태가 생기지 않는 한 소멸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사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때 작가들이 부정과거만큼 즐겨 쓰는 시제도 없을 것이다. 사건의 서술가로서 그 사건을 생생하게 환기시켜 주는가 하면, 소설가의 입장에서 사건을 창조해 내는 수단으로서도 단순과거가 기본이 되는 시제인 것이다. 비근한 예로 Alphonse Daudet의 *La chèvre de M. Seguin* ‘스쟁씨의 염소’의 한 장면을 상기해 보자 :

Blanquette *se sentit* perdue... Un moment, en se rappelant l'histoire de la vieille Renaude, qui s'était battue toute la nuit pour être mangée le matin, elle *se dit* qu'il vaudrait peut-être mieux laisser manger¹¹ tout de suite; puis, s'étant ravisée, elle *tomba* en garde, la tête basse et la corne en avant, comme une brave chèvre de M. Seguin qu'elle était... Non pas qu'elle eût³ l'espoir de tuer le loup,—les chèvres ne tuent pas le loup,—mais seulement pour voir si elle pourrait tenir aussi longtemps que la Renaude...

Alors le monstre *s'avança*, et les petites cornes *entrèrent* en danse.

Ah! la brave chevrette, comme elle y allait de bon coeur! Plus de dix fois, je ne mens pas, Gringoire, elle *força* le loup reculer pour reprendre haleine. Pendant ces trêves d'une minute, la gourmande cueillait en hâte encore un brin de sa chère herbe; puis elle retournait au combat, la bouche pleine⁹... Cela *dura* toute la nuit. De temps en temps la chèvre de M. Seguin regardait les étoiles danser dans le ciel clair, et elle se disait:

«Oh! pourvu que je tienne jusqu'à l'aube...»

L'une après l'autre, les étoiles *s'éteignirent*. Blanquette *redoubla* de coups de cornes, le loup de coups de dents. Une lueur pâle *parut* dans l'horizon... Le chant du coq enroué *monta* d'une métairie.

«Enfin!» *dit* la pauvre bête, qui n'attendait plus que le jour pour mourir: et elle *s'allongea* dans sa belle fourrure blanche toute tachée de sang...

Alors le loup *se jeta* sur la petite chèvre et la *mangea*.

(A. Daudet, *La chèvre de M. Seguin*)

사건의 진행과정이 그 얼마나 신속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개개의 행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 시야에 점철되고 있는가!

작가는 간혹 기술하는 도중 어조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무대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제를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서술의 세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과거가 서술적 이야기 속에 침입해 들어가는 예는 드물다. 그러므로 복합과거는 사건의 상호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해 주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시제다. 가령 ‘스쟁씨의 염소’ 이야기 속의 단순과거를 복합과거로 대치시켜 읽어 보자. 그 얼마나 미적지근하고 사건이 질질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작품 중에는 마땅히 단순과거가 쓰였어야 할 자리에 복합과거가 등장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Albert Camus의 *l'Etranger*를 들 수 있겠다.

⁷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I, p.149

L'asile est à deux kilomètres du village. J'ai fait le chemin à pied. J'ai voulu voir maman tout de suite. Mais le concierge m'a dit qu'il fallait que je rencontre le directeur. Comme il était occupé, j'ai attendu un peu. Pendant tout ce temps, le concierge a parlé et ensuite, j'ai vu le directeur: il m'a reçu dans son bureau. C'est un petit vieux, avec la Légion d'honneur. Il m'a regardé de ses yeux clairs. Puis il m'a serré la main qu'il a gardée si longtemps que je ne savais trop comment la retirer.

(A. Camus, l'Etranger, p. 11. Gallimard.)

스스로 객관적 입장을 취하려는 이야기체의 어조를 띠는가 하면, 복합과거의 1인칭을 썼기 때문에 자서전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il과 je의 전도, 단순과거와 복합과거의 전치,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일반적 원칙을 역행하므로써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조리의 세계라 하겠다.

또한 복합과거는 증인의 입장에서 현장에 참여하면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참여자의 시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급된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울리게 하며 우리의 현재에다 결속시키고자 할 때,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는 시제이다. 따라서 단순과거의 시제적 지표가 사건의 순간이라면, 복합과거의 시간적 기준은 담화의 순간이다.

단순과거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과거의 인칭 전체를 동일한 단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서술과 담화를 구별해 주는 기준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서술적 이야기 안에서도 단순과거의 모든 인칭형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칭과 2인칭(nous arrivâmes, vous arrivâtes)은 이미 인칭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술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반면 *il arriva, ils arrivèrent*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으며 이를 대치할만한 다른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기술의 두 차원 속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그 경계가 지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 서술에서는 단순과거(3인칭만 허용됨), 반과거, 대과거, 그리고 전망적 미래가 쓰인다. 따라서 현재, 복합과거, 미래(단순형과 복합형)는 제외된다.

2) 담화에서는 모든 형태, 모든 시제가 허용되고 있다(단순과거의 시제는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제외된다).

5. 시제의 선택

동사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허용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구조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에게는 현재, 복합과거 및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서술적인 의도와 현재의 차원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시제를 쓴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서술자의 현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자신의 구상을 숨기지 않고는 스스로 서술자로 자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공간 속에 자리를 잡으려면 사건을 현재로 나타내서는 안된다.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는 미래로 투사된 현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명령, 의무, 확신을 내포하며 서술적 분류에 속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양태인 것이다.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야기 할 때 서술자는 전망적 미래를 흔히 쓴다:

Il allait partir.

Il devait tomber.

담화에서는 반대로 단순과거를 쓰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담화 속에 부정과거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는 데서는 기능면에서 단순과거와 가치를 같이 하지만 시간성 이외에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과거를 사용한다.

6. 단순형과 복합형의 관계

복합과거는 그 용법과 구조면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단순시제와 복합시제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앞서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동사활용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두가지의 기술방법을 구분해서 이것들을 단순시제와 복합시제의 구별과 횡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과거는 담화와 서술 양쪽에 모두 쓰이는데 반해 복합과거는 담화에만 국한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명백한 모순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면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시제와 복합시제가 균형잡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명사적 형태와 직설법이 아닌 다른 형태는 제외하고 두가지를 나열해 보자.

<i>il écrit</i>	<i>il a écrit</i>
<i>il écrivait</i>	<i>il avait écrit</i>
<i>il écrivit</i>	<i>il eut écrit</i>
<i>il écrira</i>	<i>il aura écrit</i>

이 구조는 확장되어 복합형은 다시 중복합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i>il a écrit</i>	<i>il a eu écrit</i>
<i>il avait écrit</i>	<i>il avait eu écrit, etc.</i>

위에 나열된 모든 시제의 평행관계를 볼때 단순형과 복합형간의 관계는 그 자체가 시간성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립시켜 볼 때는 시간성이 사라지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시간성을 재도입시켜야만 하겠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il a écrit*는 과거시제 형태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시간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설명인가?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면서 다음 사실을 규명해 보자. *Il a écrit*는 *il écrit*, *il écrivit*와 모두 대응되고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복합형은 이중의 규범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형과 두 가지형의 뚜렷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A. 복합형은 제각기 단순형으로부터 상응하는 완료형⁹을 취할 수 있는 한 짝을 이루는 단순형과 대립하고 있다. 완료형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항상 독립절의 동사로서 구성될 수 있다:

parfait de présent	: <i>il a écrit.</i>
parfait d'imparfait	: <i>il avait écrit.</i>
parfait d'aoriste	: <i>il eut écrit.</i>

⁸ 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présent historique*는 아니다.

⁹ 편의상 *avoir*나 *être*를 조동사로 취하여 복합형을 이루는 형태를 모두 완료형이라고 하자.

parfait de futur : *il aurait écrit.*

B. 선행성을 말해 주고 있는 복합시제는 완료형과는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복합시제의 선행성은 언제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단순시제와의 관계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 논리적이고 언어 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사실 안에서 일어나는 연대기적 관계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언어 내적 선행성은 상응하는 단순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동일 시간 안에서 사행(procès)을 유지한다. 바로 이 점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특유한 개념이며 물리적 세계의 시간과는 비할 수 없는 값진 개념인 것이다. 선행성의 근사치는 있을 수 없다. ‘과거의 미래’라든가 ‘미래의 미래’ 등 아무런 의미없이 부르는 용어들은 배격되어야 한다. 과거는 하나뿐이며 아무런 수식어도 용납되지 않는다. ‘무한의 무한’이 이해될 수 없듯이 ‘과거의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형태의 뚜렷한 표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1) 독립된 형태로서 쓰일 수 없다는 것.
- 2) 시간의 차원이 같은 단순형태동사와 결합되어 쓰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선행형태는 quand와 같은 접속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비독립절에서 발견된다:

antérieur de présent : *quand il a écrit, il l'envoie.*

antérieur d'imparfait : *quand il avait écrit une lettre, il l'envoyait.*

antérieur d'aoriste : *quand il eut écrit une lettre, il l'envoya.*

antérieur de futur : *quand il aura écrit une lettre, il l'enverra.*

선행성의 형태는 그 자신 시제에 관한 어떠한 지지도 내포하지 못한다. 통사적으로 독립 형태의 시제에 의존해야 하며, 이 형태에 따라 선행성의 형태는 시제의 기준을 결정하며 스스로의 기능을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quand il a écrit..., il envoya.*

복합형은 이것이 완료시제이든 아니면 선행시제를 지칭하든 기술(énonciation)의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단순형과 꼭 같은 배분원칙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복합형 중의 어떤 형태는 담화에 속하며 또 다른 형태는 서술에 속하는 것이다. 두 기술 방법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Quand il a fini son travail, il rentre chez lui.

위의 예문에서는 현재와 현재의 선행시제인 복합과거가 쓰였기 때문에 담화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단순과거와 전과거의 사용으로 인해서 서술에 포함시키고 있다.

Quand il eut fini ..., il rentra

완료형과 선행형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표시에 의해서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두 형태 중 어느 것이 문제되는가에 따라서 제 형태간의 상호구조는 달라진다. 완료시제 범주에서는 복합형태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단순형 사이의 관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① *il a écrit; il avait écrit.*

② *il écrit; il écrivait.*

①과 ②는 시제의 계열체적 관계(relation temporelle paradigmatic)에 따라 시제의 축을 기점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형태는 상호간 시제관계를 맺지 않는다. 통사적으로 독립 형태가 아니므로 통사적 상관관계를 맺는 단순형태와 함께 쓰였을 때 한해서 대립되는 것이다:

Quand il *a fait* son travail, il *part*. 현재의 선행시제(a fait)는 현재(part)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상호 대조되었을 때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다. 이것을 시제의 통합체적 관계(relation temporelle syntagmatiqu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선행형태는 통사적으로 상관관계를 맺는 단순형태와 함께 쓰였을 때 선행시제가 규명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음의 두 예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㉑ L'enfant, qui *avait entendu*, *se réveilla*.

㉒ L'enfant, qui *avait entendu*, *s'est réveillé*.

위의 두 예문에서 ㉑는 문어체(langue écrite)에 속하며 ㉒는 구어체(langue parlée)에 속하는 구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용이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문어체와 구어체의 관계는 서술과 담화의 구별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와서 서술적 기술은 문어체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완료형은 syntagmatique와 paradigmatic한 이종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화와 서술 양체계에 모두 쓰이는 대과거(예를 들어 il avait fait)는 모호한 용법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완료시제의 독립형태로서 대과거(il avait fait)는 반과거와 마찬가지로 il a fait 또는 il eut fait 등과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시제의 형태(Quand il avait fait)로서는 독립형태(il faisait)와 대립될 뿐, 현재(quand il fait) 또는 복합과거(quand il a fait)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완료형의 형태가 이 두 부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는 통사적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¹²

7. 객관적시제와 주관적 시제

7.1. 객관적 시제

¹² Proust의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속에 있는 “La Madelaine”의 다음 부분은 독립문에서 완료형이 단순형(단순시제)과 대립하고 있는 좋은 예에 속한다. 즉 대과거는 단순과거, 반과거, 그리고 현재와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l y avait déjà bien des années que, de Combray, tout ce qui n'était pas le théâtre et le drame de mon coucher, n'existait plus pour moi, quand un jour d'hiver, comme je rentrais à la maison, ma mère, voyant que j'avais froid, me proposa de me faire prendre, contre mon habitude, un peu de thé. Je refusai d'abord et, je ne sais pourquoi, me ravisai. Elle envoya chercher un de ces gâteaux courts et dodus appelés Petites Madeleines qui semblent avoir été moulés dans la valve rainurée d'une coquille de Saint-Jacques. Et bientôt, machinalement, accablé par la morne journée et la perspective d'un triste lendemain, je portai à mes lèvres une cuillerée du thé où j'*avais laissé* s'amollir un morceau de madeleine. Mais à l'instant même où la gorgée mêlée des miettes du gâteau toucha mon palais, je tressaillis, attentif à ce qui se passait d'extraordinaire en moi. Un plaisir délicieux m'*avait envahi*, isolé, sans la notion de sa cause. Il m'*avait* aussitôt rendu les vicissitudes de la vie indifférentes, ses désastres inoffensifs, sa brièveté illusoire, de la même façon qu'opère l'amour, en me remplissant d'une essence précieuse: ou plutôt cette essence n'était pas en moi, elle était moi. J'*avais cessé* de me sentir médiocre, contingent, mortel. D'où *avait pu* me venir cette puissante joie? Je sentais qu'elle était liée au goût du thé et du gâteau, mais qu'elle le dépassait infiniment, ne devait pas être de même nature. (M.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이미 살펴보았듯이 *je fis*는 *j'ai fait*와 대등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술적 이야기와 담화를 구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상 1인칭 *je*는 1인칭이므로 서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과거 *aoriste*¹³이기 때문에 담화에서도 쓰일 수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원칙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객관적 시제인 단순과거와 주관적인 1인칭이 통합체적 관계(relation syntagmatique)를 맺는다는 것은 모순된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등관계는 다른 인칭형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je fis* 대신에 *j'ai fait*를 대치해서 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능적 대등관계는 틀림없이 1인칭으로 부터 출발하였으며, 주관성의 축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énonciation*(특히 *récit*)과 문어체가 *communication*의 개념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인칭과 시제가 대립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récit*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narrateur*인가 또는 작가 자신인가에 따라 언어의 도구는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시제의 사용도 다양해 질 수 있다. Alain-Fournier는 *Le Grand Meaulnes*에서 *narrateur*를 등장시켜 단순과거 *aoriste*의 1인칭 단수, 복수를 거의 매 페이지마다 쓰고 있다 :

Personne ne lui demanda qui était Ganache. Mais moi *je pensai* au grand diable qui, traitreusement, la veille au soir, avait attaqué Meaulnes par derrière et l'avait renversé...(Alain-Fournier, le Grand Meaulnes, chapitre III)

Ce fut sans hâte que tout le monde sortit. Il n'y avait plus, semble-t-il, entre les heures de cours et de récréation qui faisait la vie scolaire simple et réglée comme par la succession de la nuit et du jour. *Nous en oubliâmes* même de désigner comme d'ordinaire à M. Seurel, vers quatre heures moins dix, les deux élèves qui devait rester pour balayer la classe. (Ibid., chapitre III)

또한 Proust 역시 *narrateur*의 입장에서 단순과거의 1인칭을 쓰고 있다 :

Je veux essayer de le (souvenir) faire réapparaître. Je rétrograde par la pensée au moment où *je pris* la première cuillerée de thé. Je retrouve le même état, sans une clarté nouvelle. (M.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중 Madelaine에 관한 서술 부분).

만일 작가가 *je pris* 대신 복합과거 *j'ai pris*를 썼다면 서술적 이야기가 아니고 담화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narrateur*가 객관적 입장에서 있기를 바랐으며, Madelaine의 감각을 현재와 완전히 단절된 과거 사실로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단순과거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과거는 서술적 사건의 시제로 규정되며 따라서 담화에서 인칭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주관적인 과거와 그 영역을 달리하게 되었다.

7.2. 주관적 시제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화자에게 기본적인 시제는 **현재**이며 모든 것은 현재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화자가 1인칭으로 표현한 완료상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담화에서 주관적 과거시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완료형태를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령 *J'ai lu ce livre.*라는 구문을 예로 들어 보자. 기능면에 있어서는 완료상이지만 여기

¹³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aoriste*를 단순과거로 지칭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부정과거다.

에 시간적 개념을 지닌 표현을 첨가하면(J'ai lu ce livre *l'année dernière*. 또는 J'ai lu ce livre *dès qu'il a paru*.) 다시 과거시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경우, 담화 속에 쓰인 과거시제는 서술의 단순과거 aoriste와 대칭되면서 의미에 있어서도 대립된다. 따라서 *il fit*는 사건을 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객관화하는 시제이며, *il a fait*는 반대로 그 사건을 우리의 현재와 연결시켜 주는 주관적 시제인 것이다.¹⁴

8. 중복합형태(formes surcomposées)

복합형태의 유동성은 결과적으로 담화체계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시제적 구분을 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기능적인 면을 두고 볼 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다. *J'ai fait* 라는 형태를 예로 들어 보자. 복합형 자체는 완료의 의미를 지녀 양태(aspect)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je fais*라는 현재의 선행시제로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담화의 부정과거(aoriste du discours)로 쓰였기 때문에 단순형태의 기능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선행성(antériorité)의 개념을 지니는 상대적인 시제이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단순시제(temps simple)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복합형태인 것이다. 그러면 *J'ai eu fait*와 같은 중복합형태의

¹⁴ Le Bidois의 다음 설명은 복합과거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며, 완료형태의 기능과 시제의 개념을 파악하는데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Une question, toute spéculative, qui se pose au sujet du passé composé, est celle-ci: comment se fait-il que l'auxiliaire *être*, ou *avoir*, combiné sous sa forme de présent, (*j'ai, je suis*), avec le participe en *-é, -i, -u*, d'un autre verbe, puisse servir à énoncer l'action de ce verbe sous le jour et dans le plan du passé?

—a) Prenons d'abord l'auxiliaire *avoir*; en plus de la première question, il en soulève une autre, non moins curieuse: comment, étant donné sa signification essentielle, peut-il remplir le rôle qu'on lui voit jouer comme auxiliaire des verbes d'action? *J'ai, tu as*, énoncent, à la fois, deux concepts distincts: une idée de possession, une indication de temps, (un présent). Or, dans *j'ai aimé, j'ai fini, j'ai perdu*, se voit-il la moindre trace de ces deux valeurs? non; seule subsiste pour l'esprit l'idée d'*aimer*, de *finir*, de *perdre*, mais cette fois sous le jour d'un passé. Curieux avatar sémantique. Tentons de nous l'expliquer.

Lorsqu'on dit *j'ai un trésor caché*, ce que l'on donne avant tout à penser, c'est une idée de possession, celle d'un trésor appartenant au sujet parlant. *Caché*, dans cette vue, a bien l'apparence de n'être qu'une épithète propre à caractériser le trésor; ce participe semble, au moins sous le rapport grammatical, être le simple équivalent d'un adjectif quelconque, (tel que serait *considérable, précieux*, ou tout autre qualificatif analogue). De son côté, l'élément verbal, *j'ai*, ne se présente là que comme le présent d'*avoir*. Tel est, —ou tel peut très bien être—, pour la pensée, le premier aspect des choses. Que si, à un second moment, l'attention s'attache au mot *caché* et en pèse tout le sens, alors son vrai caractère, sa valeur réelle se découvre à l'esprit; il n'y voit plus simplement un adjectif, mais un verbe, et qui énonce deux choses bien distinctes: une action faite par quelqu'un, et que quelque chose a subie; en somme, une action d'un caractère passif. Cette action, quand s'est-elle faite? évidemment, dans le passé; si j'ai un trésor *caché*, c'est que ce trésor fut par moi (ou par n'importe qui) caché antérieurement. Cette évidence d'antériorité, si une fois elle s'offre à l'esprit, peut s'imposer à lui avec une force extrême; il n'a qu'à faire le rapprochement du verbe *avoir* et du participe *caché*, pour qu'il se produise une combinaison d'une figure, mais aussi d'une nature toute nouvelle, où chacun des deux éléments semble avoir abdiqué sa valeur essentielle: le participe (*caché*), sa valeur de passif, l'auxiliaire (*j'ai*), sa valeur de présent; et par un renversement absolu des valeurs, le groupe massif, *j'ai caché*, se manifeste maintenant comme un passé¹, et un passé de voix active. (Le Bidois, syntaxe du français moderne I, p. 413-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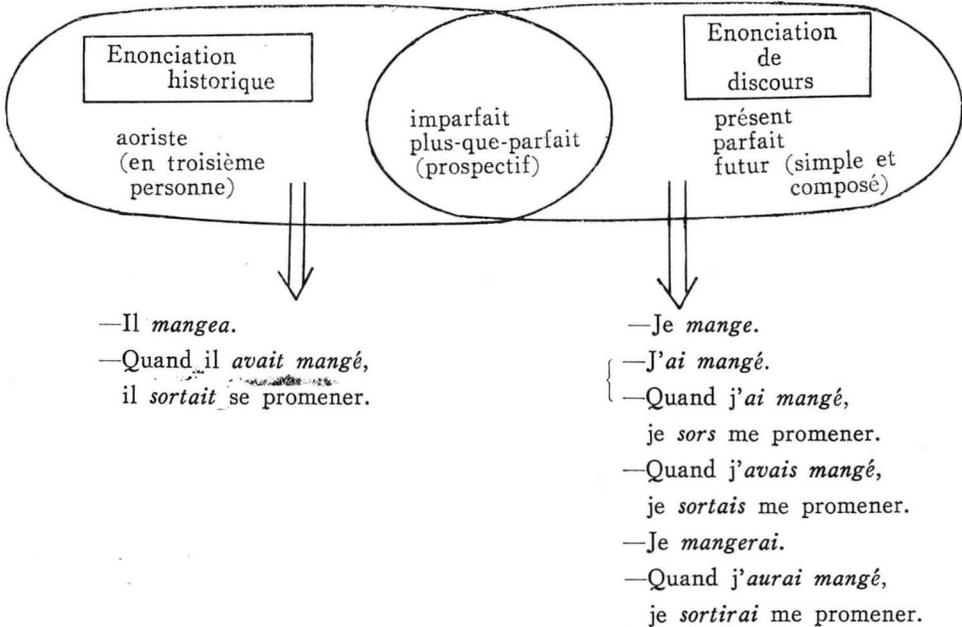
생성근원을 살펴 보자. *Je fais*라는 단순시제와 대응되는 완료시제(accompli)로서 우리는 복합시제(temps composé)인 *j'ai fait*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기능면에서 *j'ai fait*는 단순시제(temps simple)에 속하게 되므로 이것의 완료시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복합시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9. 동사의 이원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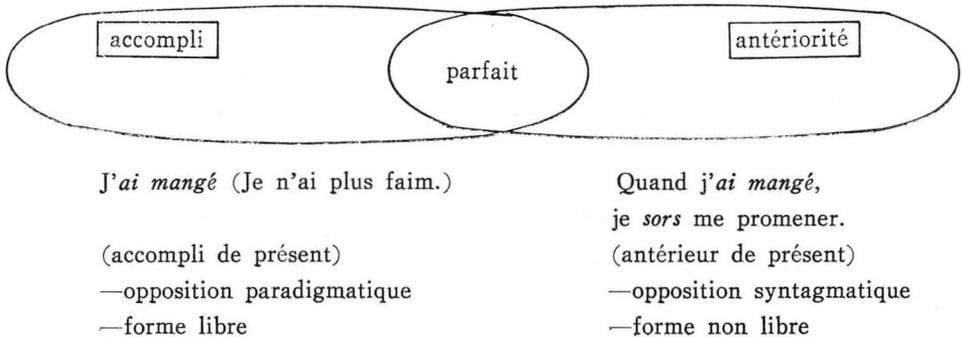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énonciation)과 시제(temps)가 상호 어떻게 결합되어 완료와 선행시제(antériorité)에 관계하며 담화와 서술에서 어떻게 대응관계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았다.

서술과 담화에서 보여 주었듯이 동사의 시제체계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다.

1) Grandes divisions du système temporel du verbe français



2) Ambigüité du parfait en énonciation de discours



⋮
↓
(aoriste)

3) **Enonciation historique**

	Temps	Accompli
	Forme simple	Forme composé
Présent		
Passé	il <i>mangea</i>	?
	il <i>mangeait</i>	il <i>avait mangé</i>
Futur		

Enonciation de discours

	Temps		Antériorité et accompli
	Forme simple	Forme composé	
Présent	je <i>mange</i>		j' <i>ai mangé</i>
Passé		j' <i>ai mangé</i>	?
	je <i>mangeais</i>		j' <i>avais mangé</i>
Futur	je <i>mangerai</i>		j' <i>aurais mangé</i>

4) **Formes surcomposés:** réparation du système atteint par l'ambiguïté du parfait en énonciation de discours.

—il *a eu mangé*/il *a mangé*

—il *eut mangé*/il *mangea*

5) **Enonciation historique**

	Temps	Accompli
	Forme simple	Forme composé
Présent		
Passé	il <i>mangea</i>	il <i>eut mangé</i>
	il <i>mangeait</i>	il <i>avait mangé</i>
Futur		

Enonciation de discours

	Temps		Antériorité et accompli
	Forme simple	Forme composé et surcomposé	
Présent	je <i>mange</i>		j' <i>ai mangé</i>
Passé		j' <i>ai mangé</i>	j' <i>ai eu mangé</i>
	je <i>mangeais</i>		j' <i>avais mangé</i>
Futur	je <i>mangerai</i>		j' <i>aurai mangé</i>

참 고 문 헌

- Benveniste, Emil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I, Gallimard, Paris.
 Cressot, Marcel (1969) *Le Style et ses Techniques*,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Paris.
 Imbs, Paul (1960) *L'emploi des Temps Verbaux en Français Moderne*, Klincksieck, Paris.
 Le Bidois, Robert (1952) *Syntaxe du Français Moderne* I,II, Picard, Paris.
 Saussure, Ferdinand de (1967)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Paris.

ABSTRACT

Relations de Temps en Français Moderne

Ji-young Chung

Les paradigmes des grammaires donnent à croire que toutes les formes verbales tirées d'un même thème appartiennent à la même conjugaison, en vertu de la seule morphologie. Mais nous nous proposons de montrer que l'organisation des temps relève de principe moins évident et plus complexes. Les temps d'un verbe français ne s'emploient pas comme les membres d'un système unique, ils se distribuent en deux systèmes distincts et complémentaires. Chacun d'eux ne comprend qu'une partie des temps du verbe; tous les deux sont en usage concurrent et restent disponibles pour chaque locuteur. Ces deux systèmes manifestent deux plans d'énonciation différentes: énonciation de l'histoire et celle du discours.

Les paradigmes de la conjugaison n'enseigne pas non plus le principe de la distribution, puisque la distinction que nous faisons entre deux plans d'énonciation traverse la distinction entre temps simples et temps composés. Quelle est la relation entre temps simples et temps composés? Nous avons constaté que les temps composés ont un double statut: ils entretiennent avec les temps simples deux types distincts de relations:

1) Les temps composés s'opposent un à un aux temps simples en tant que chaque temps composé fournit à chaque temps simple un corrélat au parfait. Nous appelons "parfait" la classe entière des formes composée dont la fonction consiste à présenter la notion comme "accomplie" par rapport au moment considéré, et la situation "actuelle" résultant de cet accomplissement temporalisé. Les formes de parfait ont un critère formel: elles peuvent toujours se construire comme verbes d'une proposition libre.

2) Les temps composés ont une autre fonction: antériorité. L'antériorité se détermine toujours et seulement par rapport au temps simple et corrélatif. Tel est le statut double du parfait.

15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과
(접수: 1982. 1. 13)